

대형할인점 잇단 개점... 업계 영역다툼 사할

“먹느냐” “먹히느냐”
광주는 유통 전쟁중

백화점·할인점 22곳 난립...리모델링 등 마케팅 강화 고객 붙잡기

올해들어 지난 18일 롯데마트 월드클럽이 새로 문을 열면서 광주지역 할인점들의 생존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할인점들의 생존경쟁은 이미 포화상태인 시장을 놓고 벌이는 전쟁이라는 점에서 경쟁에서 패한 업체는 존립기반을 위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상권이 겹치는 곳에서는 기존업체와 신규업체간 치열한 시장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상권이 겹치지 않는 곳의 기존업체들도 대대적인 리모델링으로 잠재 수요갑소에 대비하고 있다.

22일 광주지역 유통업체에 따르면 인구 140만명의 광주 시내에서 영업중인 대형 유통업체는 백화점 3곳과 할인점 19곳 등 모두 22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할인점은 이번엔 문을 연 롯데마트 월드클럽 등 롯데마트 3곳, 이마트 4곳, 빅마트 11 곳 등이다.

인구 150만명의 대전의 대형 유통업체가 16개(백화점 5개, 할인점 11개)라는 것을 감안하면 광주지역

유통업체의 난립을 짐작할 만 하다. 유통업체에서는 광역상권인 백화점의 경우 적정 소비인구를 35만명당 1개, 할인점은 10만명 1개꼴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의 경우 할인점이 인구 6만4천명당 1개꼴로 난립하면서 업체간 사할을 건 영역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가장 치열한 곳은 서구 풍암동과 광천동을 중심으로 한 서구와 남구

상권 다툼이다. 지난해 7월 광주신세계가 광천동에 이마트를 개점하면서 10여년만에 제2리모델링이 시작됐고 올들어 롯데마트가 풍암동에 전국 최대규모의 월드클럽(9천여평)을 열어 경쟁에 불을 붙였다.

월드클럽 개점으로 직격탄을 맞은 빅마트는 풍암점 고객의 이탈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전단지 살포를

통해 향후 유통업체의 이동을 당부하는 한편 일정 이상의 구매고객에게 자회사의 사우나 이용권을 주고 있다.

광주신세계도 월드클럽 개점으로 인한 고객이탈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간부들이 월드클럽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등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구와 남구 상권을 놓고 벌이는

이번 전쟁은 오는 8월께 남구 봉선동에 이마트가 개점하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여기에 광주시의 사유지 매각반대 입장으로 홈플러스 주월점 개점이 불투명해졌다고 하지만 개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향후 할인점 전쟁의 핵으로 떠오를 공산이 크다.

또한 이곳 상권과는 겹치지 않지만 할인점중 단일 매장으로는 최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홈플러스 동광주점이 오는 3월 안골을 목표로 80여평을 들여 매장을 넓히는 대대적인 리모델링 작업을 추진중이다.

광주지역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앞으로도 홈플러스가 흑석사거리와 수완지구내에 복합 쇼핑몰을 지을 예정이고 계림동 옛 광주시청 부지에도 할인점 진출 가능성이 있다”며 “대형 할인점 개점은 고용창출이라는 긍정적인 면은 있지만 영세상권 몰락과 지역자금 역외유출 등 부정적인 측면도 강하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새돈 공급 개시

22일 오전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서 열린 은행 관계자들이 이날 처음으로 선보인 만원권 화폐를 운반차량에 옮겨놓고 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이날 새 만원권 700억원과 천원권 700억원을 은행을 통해 광주·전남지역에 공급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기아차 판매대리점 차별 조사 자금난 지역중소 대출 급증

공정위, 현대차 과징금 이어 불공정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의 판매대리점 차별행위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을 물리는 등 제재를 내린 데 이어 기아자동차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어 기아차도 조만간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22일 “기아자동차도 판매대리점 차별행위에 대한 신고가 작년 6월께 접수돼 그동안 실무적으로 조사를 벌여왔다”면서 “몇 가지 추가로 확인할 사항들을 점검한 뒤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공정위 전원 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기아차가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노조와 협정을 통해 독립사업자인 판매대리점이 판매거점을 이전할 때 노조와 협의토록 해 대리점의 사업활동을 제약한 점에 조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에 대한 판매목표 강제할당이나 직원채용 간여 부분은 당초 신고된 사항에 포함돼있지 않았고 대리점 이전부분도 기아차는 일부 조건을 부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종대기자 jitee@kwangju.co.kr

광주 지난해 무역흑자 50억6,400만달러

지난해 광주는 승용차·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로 무역수지가 크게 개선된 반면 전남은 국제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광주세관이 발표한 ‘2006년 12월중 광주·전남 무역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의 무역수지는 50억6천400만달러 흑자로 나타나 지난 2005년 35억900만달러보다 44%(15

억5천500만달러) 증가했다.

반면 전남은 84억8천200만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면서 적자폭이 전년보다 19억6천600만달러 늘어났다. 이는 전남의 주력 수입물품인 원유 단가가 1년 전보다 70% 가량 상승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전남은 또 12월중 무역수지도 11억4천1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종대기자 jitee@kwangju.co.kr

지난해 1조 7천억 늘어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으로 인해 은행권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과 운전자금 용도의 산업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22일 발표한 ‘2006년 11월중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11월에만 260억원이 늘어나는 등 지난해 1~11월사이에 1천259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1천794억원이 늘어난 것이며 잔액기준으로도 지난해 11월말 현재 3천6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7%인 1천124억원이 증가했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란 판매업체가 현금확보를 위해 구매업체로부터 받은 외상매출금과 약속어음 등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한다.

또 예금은행의 산업대출도 지난해(11월말 현재) 1조6천680억원이 늘어나 전년 대비 87.8%(7천798억원)나 급증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7천206억원)과 제조업(5천382억원) 증가분이 대부분을 차지해 이들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光銀, 설 특별자금 1천억 대출

중소대상 내달 16일까지

광주은행이 지역 중소기업에 설 특별자금을 대출해준다.

22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다음달 18일 설을 앞두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에 종업원 설상여금을 포함한 경영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2월 16일까지 총 1천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대출해 준다.

업체별 한도액은 6억원으로 대출 기한 1년에 적용되는 연 6%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새 지폐 로또?

교환위해 사들임계 노숙 대기자들 몸싸움 난장판

새 1만원·1천원권의 정식 발행이 시작된 22일 한국은행 화폐 교환창구에서 새 지폐를 교환하기 위해 사들임계 노숙하며 줄을 선 사람들 간에 자라다 툼이 벌어지면서 오전 9시30분 예정이던 화폐교환 업무 개시가 1시간 넘게 지체됐다.

발세워 줄을 서 있던 대기자들은 자체적으로 번호표를 마련해 1번부터 200번까지 교부했으나 이날 새벽 200번 이후의 사람들이 창구 앞에서 별도로 줄을 서면서 행렬 자체가 이수리장으로 변해 대기자들 간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은은 화폐교환창구에서 오전 9시30분부터 일련번호 10001-30000번을 새 지폐를 1인당 100장씩 교환해주기 시작했다. 다만 200번까지 번호표를 받은 대기자들이 90장을 교환받고 나머지 대기자들은 10장씩 교환받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져 오전 11시께 교환이 시작됐다.

/연합뉴스

새 1만원권 지폐 도안 ‘혼천의’ 논란

“중서 전래된 천문 기구” “세종대왕과 연관성 있다”

새 1만원권과 1천원권 화폐가 22일 광주·전남지역에 일제히 공급됐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이날 오전 7시 본부에서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권 화폐 지급식을 갖고 1만원권 700억원과 1천원권 700억원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신권은 오전 9시30분부터 금융기관 각 영업점을 통해 광주·전남지역 주민들에게 공급됐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새지폐는 첨단 위조방지 장치로 안전성을 높였고 크기를 줄이고 색상을 밝게 해 미관을 개선했다”면서 “과학·예술 분야에서 역사적 도안을 채택, 문화적 자부심을 높인 것도 특이할 만 하다”고 강조했다.

했다. 그러나 1만원권의 뒷면 바탕무늬로 들어간 혼천의(渾天儀)가 우리의 독자적인 과학 창조물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발행된 1만원권은 고려대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국보 제230호인 혼천시계의 일부분인 혼천의와 조선시대 천문도 ‘천상열차분야지도’, ‘보현산 천문대 천체망원경’을 배경무늬의 도안으로 담았다.

이중에서 혼천의가 중국에서 전래된 천문관측기구여서 우리의 독자적인 과학창조물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

이에 대해 한국은행측은 “혼천의가 중국에서 전래된 천문관측기구인 것은 맞지만 지폐도안으로 채택한 이유는 1만원권의 앞면 도안으로 들어간 세종대왕과의 연관성 때문”이라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

Advertisement for 'Korea Food Industry (주)' (국제외식산업(주)). The ad features a large image of a traditional Korean festival (jeogori) with people in white Hanbok. Text includes '맛과 맛을 새롭게...' (New taste and new taste...), '아외 결혼식 가능' (Foreign wedding possible), and '관광버스음식 대절' (Tour bus catering). Contact information: Tel. (062) 262-2278.

Advertisement for 'Blotlys Korea' (Blotlys Korea). The ad features a large image of a Blotlys Korea product box. Text includes '생각을 바꾸면 문명이 바뀝니다.' (Changing your mind changes civilization.), 'Blotlys Korea가 알려줍니다.' (Blotlys Korea tells you.), and 'Blotlys Asia' logo. Contact information: Tel. (062) 531-3177, 3399.